

■ 수행 평가와 표준화 환자

— Skills lab의 필요성

마취통증의학교실 김 종 훈

우리대학에서 광혜 새 교육과정을 도입한 것은 학생들에게 현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사고, 지식을 조직 및 통합하는 능력,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 등을 배양시키고 의사로서 지녀야 할 태도 및 술기 능력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한 일 것이다. 그 동안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었다. 그 중에서도 태도와 술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표준화 환자 프로그램과 skill lab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 SP)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firsthand) 여러 가지 임상기술(병력청취, 신체검사, 관계형성 등)을 배우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진짜 환자의 특성을 습득하도록 세심하게 훈련된 사람으로 PBL, 임상실습, 학생평가 등에서 활동한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의학교육의 paradigm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즉, '과정(process)에 기초한 교육'에서 '결과(competency)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의과대학이 어떤 과정으로 학생을 교육하는가 뿐만 아니라 과정을 이수한 후에

그 교육의 결과로 학생이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SP가 대두되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각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자격시험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교에서도 이미 수년전부터 SP를 이용한 평가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2005년 1월에는 그 동안의 시험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SP를 훈련시켜서 3학년 실습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실습 종료 후 시행하는 한번의 시험으로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평가를 기초로 학생의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힘든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러 새 교육과정과 임상실습에 SP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면 문제 중심학습(PBL)의 teaching module을 기초로 SP를 훈련시켜 실제 PBL 첫 번째 session을 하기 전에 학생이 SP와 interview하는 과정을 녹화하여 실제 첫날 session 중 '증례 검토' 단계에서 단순히 학생이 tutor에

게 물어보는 것 외에 이 녹화물을 tutor와 학생이 같이 시청하면서 PBL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 과정에서 interview에 참가한 학생은 SP를 통해 병력 청취 방법을 실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P에게서 의사가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본 학생의 태도에 대한 적절한 feedback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적당한 지도자와 녹화물을 같이 시청하며 지도를 받을 수도 있다. 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임상의학입문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적절한 실습과 과정 후 평가에 SP가 사용될 수 있다. 임상실습 중에는 실습 후에 SP를 이용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이 어느 과정 실습을 마친 후에 실제로 환자 보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학생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환자 진료에 제대로 적용하는 능력이 있는지 등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P를 이용한 program이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술(communication skill)을 교육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skills lab은 학생의 technical skills을 교육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술을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익힐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교에서

도 수년 전에 각 교실에 이와 같은 술기 교육을 위해 필요한 도구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이때 구매한 model 중에 상당수가 실험실 한 편에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3, 4학년 위원회에서 특히 필수 실습을 담당하는 교실을 중심으로 의과대학생이 꼭 익혀야 하는 필수 술기를 정하여 이 술기의 실습을 담당할 교실을 정하고 이에 적당한 model, 구체적 실습계획과 학생 수를 감안한 수량 확보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하여 현재 간호대 3층에 위치한 간호대 실습실을 확대 개편하여 술기를 실습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더불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technical skills을 익히기 위한 실습공간은 물론 SP를 훈련시키고 SP를 이용한 실습이 가능한 studio와 full scale human simulator를 이용한 실습 공간을 건설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skills lab은 의과대학생을 위한 기초 기술뿐만 아니라 각 전문 분야의 고차원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임상 각과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